

제9강 착한 사마리아인과 자비로운 아버지

1.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루카 10,29~37)

1.1 출전, 문학양식과 구조

착한 사마리아인의 본보기는 루카 복음사가의 특수사료이다. 이 양식은 루카가 이웃 사랑에 대한 본보기를 비유로 제시한 것이다. 이 비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누가 이웃인지에 대한 율법학자의 질문(10,29)

둘째, 사제, 레위, 사마리아인의 경우(10,30~35)

셋째, 이웃의 범위에 대한 예수님의 질문(10,36)

넷째, 자비로운 사마리아인에 대한 율법학자의 인정(10,37ㄱ)

다섯째, 사마리아인처럼 처신하라는 예수님의 명령(10,37ㄴ)

1.2. 누가 이웃인지에 대한 율법학자의 질문(10,29)

29절 : 그는 이웃사랑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대답을 듣고자 했다가보다 이론적 차원에서 자기의 관점을 합리화하고 자기의 질문제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인상을 주고 싶어한 것 같다. 예수님은 이웃을 율법학자의 생각과는 달리 해석하셨다. 그분은 이웃의 범위를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확대하신다.

1.3. 사제, 레위와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10,30~35)

30절 : ‘예리고’ - 예루살렘에서 27.75km떨어진 곳. 예루살렘은 해발 790m 높이에 예리고는 해발 250m 아래에, 요르단과 사해에서는 10km가 되지 않는 거리에 위치해 있다. 예루살렘과 예리고 사이의 길은 유다 광야를 거쳐 가며 바위와 동굴이 많아 강도들이 쉽게 숨을 수 있는 지역이었다. 이곳은 예수님 시대 훨씬 이전부터, 또 몇 세기 이후에도 강도들이 떼를 지어 출몰하여 폭력과 살인을 자행하는 곳으로 소문이 났다.

“마침 어떤 사제가 그 길로 내려가다가”(31절 ㄱ) : 이 사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무를 마친 후 예리고로 귀가하던 길이었던 것 같다. 그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고 거기서 내려오고 있었다고 하기 때문이다.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31절 ㄴ) : 유대인들의 생활핵심인 성전에서 근무하는 특권을 누리며 하느님을 찬양하고 그들의 존경을 받는 그 사제는, 가련하고 비참한 이웃을 돕지 않고 초주검이 된 그를 방치한 채 다른 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그 사제가 왜 그렇게 했는지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32절 : 유다 사회에서 레위인들은 야곱 성조의 셋째 아들 레위(창세 29,34)의 지파에 속하고, 성전에서 사제를 돕는 것 이외에 유대인들의 종교생활에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일을 맡은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유다교의 당국자들인 사제와 레위인은 이 가련한 사람을 향한 이웃사랑을 거절했다.

33절 : 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분리주의자들로 낙인찍고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하며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요한 4,9설명을 보라)

유다인들이 경멸한 사마리아인이 그에게 훌륭한 이웃이 된 것이다.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어떤 한 사마리아 사람을 이웃사랑의 본보기로 제시하셨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자기 노새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34절) : 사마리아인은 여섯 가지 자비로운 조치를 취했다. 첫째, 그는 상처를 입은 그에게 다가갔다. 둘째, 그는 휴대하고 있던 기름을 발라 상처 부위를 가라앉히고 포도주를 부위에 부어 소독했다. 포도주의 산성은 살균효과를 낸다. 셋째, 그는 상처를 싸매 주었다. 넷째, 그는 피해자를 노새 같은 탈 것에 태우고 자기는 걸어간 것 같다. 다섯째, 그는 피해자를 여관으로 데리고 갔다. 여섯째, 그는 밤을 새면서 그를 여관에서 보살펴주었다. 이러한 여섯 가지 봉사는 그를 위한 사마리아인의 사랑을 강조한다.

35절 : 당대 가난한 사람의 하루 생활비가 한 데나리온의 12분의 1이었던 것으로 보아, 두 데나리온은 24일 동안의 생활비가 되는 셈이다.

1.4. 이웃의 범위에 대한 예수님의 질문(10,36)

36절 : 거리나 장소나 종족이나 종파가 이웃사랑을 만들지 않고 연민, 배려와 희생이 이웃사랑을 창조한다. 그러나 착한 사마리아인과는 반대로 사제와 레위인은 그 불행한 사람 곁에 있었지만 자기 중심주의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이웃이 되어 주지 않았다. 이웃사랑은 황금률에 따라 자기중심주의에서 해방되어 피해자의 입장에 서야 가능하다.

1.5. 자비로운 사마리아인에 대한 율법학자의 인정(10,37ㄱ)

율법학자는 누가 이웃사랑의 본보기였는가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하지 않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 사람입니다”하고 대답한 것은 이웃을 같은 동포에만 국한시킨 자기의 견해를 바꾸기 시작했지만, 아직 명시적으로 사마리아인을 이웃의 범주에 포함시키기를 꺼렸던 것 같다.

1.6. 사마리아인처럼 처신하라는 예수님의 명령(10,37ㄴ)

이웃사랑은 말만으로 하거나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속적으로 실행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같은 계약의 백성에 한정된 이웃의 범위를 넘어서서 자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하느님을 향한 사랑을 입증하고 요구하신다.

2. 자비로운 아버지(루카 15,11~32)

2.1. 출전, 문학양식과 구조

루카 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의 진술은 루카 복음사가의 특수자료이다. 이 대문의 문학양식은 비유이다. 이 비유의 핵심은 작은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무조건적 사랑과 큰 아들에게 자기의 기쁨에 동참하라는 제의에 대한 것이다.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나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라는 표현보다 ‘자비로운 아버지, 되찾은 아들과 불평하는 큰 아들의 비유’가 더 적절하다.

첫째, 도입(15,11)

둘째, 작은아들의 떠나감(15,12)

셋째, 작은아들의 타락(15,13~15)

넷째, 타락의 결과(15,16)

다섯째, 회개와 귀향(15,17~21)

여섯째, 아버지의 환영(15,22~24)

일곱째, 큰아들의 분노(15,25~28ㄱ)

여덟째, 큰아들의 반대(15,28ㄴ~30)

아홉째, 작은아들의 회개에 대한 아버지의 기쁨(15,31~32)

2.2. 도입(15,11)

11절 : 이 비유의 등장인물은 팔레스티나의 농부로 보이는 아버지, 작은아들, 큰아들이다.

2.3. 작은아들의 떠나감(15,12)

작은아들은 자기 몫의 재산을 유산으로 줄 것을 아버지에게 청했다. ‘재산’(οὐσία)은 ‘생존, 자산’을 뜻하고 농장과 같은 토지를 가리키는 듯하다. 아버지는 재산을 분배해 줄 것을 청하는 작은아들에게 살림을 나누어 주었다. ‘살림’(βίος)은 ‘생명, 생활양식, 생활수단’을 뜻한다. 아버지는 가족의 생명을 보장하는 살림, 즉 자기 생명을 작은아들에게 나눠주어 그가 생존할 수 있게 했다. 팔레스티나의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르면, 아버지는 자기가 죽은 후 재산을 아들들에게 분배하도록 유언을 남기거나(민수 36,7~9; 27,8~11) 자기가 살아 있는 동안 베풀곤 했다.

유산분배는, 장남은 다른 동생들보다 곱절의 유산을 받았고, 아들이 둘인 경우 큰아들이 재산의 3분의 2를, 작은아들은 3분의 1을 상속받았다(신명 21,17). 아들이 아버지의 부동산을 팔 경우, 구매인은 그의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만 소유할 수 있고, 그의 동생은 판매된 부동산에 대해 아무런 권리도 행사할 수 없었다. 아들은 자기 몫을 챙긴 다음에는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 어떤 요구도 할 수 없었다(루카 15,19). 아버지의

유언법에 따라 자기 살림의 3분의 1을 작은아들에게 주고 큰아들에게는 아직 분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루카 15,22,23,31) 큰아들이 아버지의 집에서 살면 아버지가 죽은 후 자기 유산을 차지할 수 있었다.

2.4. 작은아들의 타락(15,13~15)

13절 : ‘방종한 생활’은 그의 형이 표현한 대로 윤락여성들과의 난잡한 성생활을 가리킨다(루카 15,30). ‘방종한’(ἀσώτης) 혹은 방탕한은 어원적으로 ‘구원이 없는’(ἀ-〔결성어〕 + σωζω〔구원하다〕)을 뜻한다. 작은아들의 삶은 구원에 대한 희망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이다.

14절 : 작은 아들은 방탕한 생활로 파산하고 점점 더 돈에 쫓돌리게 되었다. 그의 처지는 설상가상으로 그 지방에 닥친 심한 기근으로 더욱 악화되었다.

15절 : 그가 돼지사육이라는 유대인들에게는 혐오스러운 일을 하게 된 것은 고용주가 시키는 어떠한 일도 다 하겠다는 고용조건을 수락했음을 가리킨다. 그는 굶어죽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것 같다. 돼지를 사육하는 이 주민은 분명히 이방인이다. 작은아들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경멸의 대상인 이방인에게 고용되어 가장 더러운 일인 돼지 사육일지라도 기꺼이 해야 할 형편이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졌다.

2.5. 타락의 결과(15,16)

16절 : 작은아들에게 낯선 객지에서 그 누구도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부정한 돼지의 사료조차 구할 수 없었다. 돼지사육을 맡긴 주인도 그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은 악덕 고용주였다. 작은아들에게 어떤 돌파구도 보이지 않았다. 그가 아버지의 보호와 사랑을 저버리고 자립하려고 애쓴 결과는 인간 이하의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2.6. 회개와 귀향(15,17~21)

17절 : 작은아들은 굶어 죽게된 비참한 처지에서 자기가 아버지에게 저지른 잘못을 인식하고 제 정신을 차려 가책에 사로잡혔다. ‘죽다’(ἀπόλλυμαι)는 말은 ‘멸망하다, 파괴하다, 상실하다’를 뜻한다. 작은아들의 생명은 굶주림으로 파괴되고 있었다. 그는 자기 아버지의 집에서 매일 최저 노임으로 품을 파는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낫다는 것을 알고서는 회한의 고통을 느끼고 있었다. 작은아들의 아버지는 고용인들에게 충분한 음식을 제공하는 어진 고용주였기 때문에 그들이 음식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다. 작은아들은 이 세상에서 의지할 분이라고는 자기 아버지밖에 없다는 것을 통감하고 자기 잘못을 고백하기 위해 귀향을 결심했다. 그것은 회개의 시작이다.

18절 : 사람에게 잘못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 잘못하는 것이다. 사람들을 착취한 세리도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비를 간청했다.

19절 : 작은아들은 주인의 가족으로 인정받는 종들보다 더 비천한 날품팔이꾼들의 신분으로 내려갈 자세가 되어 있었다. 이렇게 그는 자기가 불효자식이 될 자격도 없음

을 간주하고 다만 아버지의 자비와 관용에 의지할 뿐이다. 그것은 작은아들이 회개한다는 것을 뜻한다.

20절 : 뜻밖에 아버지께서는 그가 회개했다는 말을 듣기 전에, 그가 아직도 회개하기 전에 그를 사랑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알아 볼 수 있을 정도의 거리에 그가 왔을 때 그를 향해 달려가서 연민과 기쁨의 표시로 그를 포옹하고 뜨겁게 입을 맞추었다. 입맞춤은 아버지가 작은아들을 용서하고 그의 귀향을 기꺼워한다는 것을 표현한다. 아버지의 이러한 사랑은 하느님의 모습을 의미한다. 하느님의 자비는 죄인을 회개하게 만드는 힘을 가진다. 그리스도인들의 사랑도 그러하다.

2.7. 아버지의 환영(15,22~24)

22절 : 아버지는 작은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 주고 신을 신겨 줌으로써 자기 아들이 지녀야 할 모든 품위를 회복시켜 준다. 아버지가 그에게 반지를 끼워 준 것은 그에게 권위를 주었다고 여기기보다 가족관계를 끊은 그에게 다시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었음을 암시하는 것 같다.

23절 : 아버지는 대축일의 경우처럼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는데, 이러한 잔치는 고기를 드물게 먹었던 기원후 1세기의 팔레스티나에서 대단히 기쁜 날이나 특별한 날에만 거행되었음을 감안하면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배려와 기쁨이 컸다는 것을 강조한다.

24절 :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그의 기쁨은 잃어버린 양을 되찾은 목자와 잃어버린 은전을 되찾은 부인의 경우를 상기시켜 준다.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기쁨은 이 목자와 부인의 기쁨보다 훨씬 더 크다. 이렇게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하느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 당신의 뜻을 어기고 타락한 죄인을 언제나 무조건 포용하려고 기다리시며 한없는 자비를 베푸는 분이시다. 또 하느님은 회개하는 죄인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도 자비를 거두지 않으신다.

2.8. 큰아들의 분노(15,25~28ㄱ)

25절 : 큰아들은 집에 가까이 와서 악단의 연주소리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난데없이 잔치 분위기가 조성된 것을 의아해했다.

27절 : 작은아들이 건강한 몸으로 집으로 돌아온 것은 그가 윤리적으로 죽은 상황에서 영적으로 살아 돌아온 것과 함께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또 다른 이유이다. 루카 복음사가는 자기 독자들에게 하느님 아버지께서 회개하여 당신 품속으로 돌아오는 당신 자녀들을 다시 맞이하시어 당신의 온 백성과 함께 기뻐하신다고 가르친다.

28절 ㄱ : 작은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편애, 집에 남아서 효자 노릇을 한 자기보다 타락한 동생을 더 보살피는 아버지의 불공평한 대우 때문에 큰아들은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려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2.9. 큰아들의 반대(15,28ㄴ~30)

28절ㄴ : 큰아들은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할 관대한 마음이 없었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무엇을 간청했는지는 큰아들의 불만(루카15,29~30)에서 드러난다.

29절 :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아무런 존칭도 사용하지 않고 비난하기 시작했다. 큰아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버지가 불공평하고 부당하다는 점이다. 그는 아버지를 섬기고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킨 의로운 사람이다. 그러나 아버지와 큰아들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라기보다 의무감에 뿌리내린 법적 관계였다. 또 큰아들이 간과한 것은 아버지가 회개하는 아들에게 무상으로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이다. 아버지의 자비는 큰아들이 생각하는 정의, 스스로 외롭다고 여기는 인간적 정의를 능가한다. 그는 공평심에 집착하기보다 동생에 회개에 대한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동생을 환영하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럼에도 하느님은 큰아들과 같은 사람들을 배척하시기는커녕 당신의 기쁨에 참여하라고 부르신다.

회개하는 작은아들을 환영하는 아버지는 죄인의 회개를 기뻐하시는 하느님의 모습을 가리킨다. 회개는 하느님의 사랑을 받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큰아들은 구약의 구원경륜에 의지하는 이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죄인들의 회개를 무시하는 모든 사람들도 상징한다.

30절 : 큰아들은 온 가족을 부양하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소비해버린 동생의 죄를 비난했다. 그가 아버지에게 성을 낸 이유는 창녀들과 놀아나면서 유산을 탕진한 동생이 아버지를 모시고 충실하게 살아온 자기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기 때문이다.

2.10. 작은아들의 회개에 대한 아버지의 기쁨(15,31~32)

31절 : 아버지는 자기에게 충실한 큰아들을 늘 마음속에 품고 있으며 자기의 모든 재산이 그의 몫임을 상기시키고 자기가 불평하다는 그의 불평이 근거가 없음을 강조했다. 실상 작은아들은 가산의 3분의 1만 유산으로 가져갔고, 큰아들은 아버지가 죽으면 나머지를 다 차지하기로 정해져 있다.

32절 :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동생과 형제관계를 상기시키며, 그의 귀향에 대한 자기의 기쁨에 그의 형님으로서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동참은 권장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이다. 왜냐하면 아버지께 죄를 지어 윤리적으로 죽은 동생이 살아났고, 행방이 묘연했던 동생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하느님이 죄인들의 회개를 반기시며 당신의 기쁨에 동참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자비를 본받으라고 당부하신 것을 강조하셨다. 하느님과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은 그분이 죄인들의 회개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한다. 그러니까 이 기쁨에 동참하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하느님의 자애로우신 모습을 증언하기를 거절하는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다.